



## ■ 지훈상 국제병원연맹(IHF) 총회 대회장 / 연세대 의료원장

“이번 행사를 통해 병원산업 전반에 대한 국제적 교류를 갖게 되고, 각국 병원들간에 정보교환과 현안을 공유하여 국내 병원산업과 보건의료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전체 병원인들과 병원을 둘러싸고 있는 병원산업 그리고 언론이 하나가 되어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협력할 때 비로서,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는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병원연맹 총회에선 의료시장 개방을 비롯한 병원 산업 전반에 대해 세계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통해 병원산업 전반에 대한 국제적 교류를 갖게 되고, 각국 병원들간에 정보교환과 현안을 공유하여 국내 병원산업과 보건의료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병원들이 세계 다른 나라의 병원들과 비교해 우수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병원산업 특히 IT를 근간으로 한 유비쿼터스 분야는 가장 선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이번 국제행사는 이런 우리의 우수성을 만방에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삼성동 COEX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35차 국제병원연맹(IHF : International Hospital Federation) 총회 및 학술대회의 대회장을 맡아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연세대 지훈상 의료원장은 이 국제행사가 병원산업을 통해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IHF총회엔 국내에서 2,000명, 그리고 외국에서 1,000명 등 3,000여명의 국내·외 병원인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IHF 총회 사상 최대 최고의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우리 국내·외 병원인들 모두에게 있어서 IHF 총회가 최고의 학술제전이자 모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 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서른다섯번째 총회를 갖게 될 국제병원연맹(IHF)은 비정치적 국제병원기구로서 회원국 상호간의 정보와 지식, 경험을 상호 교환하여 병원발전의 증진을 도모하고, 각 회원국으로부터 보건의료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며 회원국 병원기구 및 조직의 진보적인 국제적 연대를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기구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특정한 분야에 종사하거나 이에 관심 있는 회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단체로선 국제건축가연합과 구매지부, 대학병원 지부 등을 두고 있다.

이 기구는 또 각국 병원협회 및 보건복지부를 A회원으로, 병원 및 보건의료관련 단체를 B회원으로, 보건의료관련 종사자를 C회원으로, 보건산업 관련 기업을 D회원으로 그리고 명예회원을 E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전세계 1백여 나라들이 가입해 있고 지난 1966년 정식 가입한 우리나라는 21개국으로 구성된 이사국의 일원으로서 이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가 국제병원연맹 총회를 유치하기로 한 것은 2000년 3월이었으니까 상당히 오래 전 일이었지요. 다수의 이런 결정에 따라 당시 병원협회 내에 총회 유치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어 200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33차 총회에 여러 명의 대표단을 참가시켜 총회개최를 원하는 몇몇 나라들과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였었지요. 병원협회가 이 총회를 유치하기로 한 것은 이 행사를 통해 국위를 선양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당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던 회원병원들의 경영상황을 세계 여러 나라가 자리를 함께 하여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국제행사라는 메시지를 통해 정부에 그 실상을 전달하여 개선을

위한 한가닥 실마리라도 찾아보려는 모든 병원인들의 절실한 마음의 발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우리의 국제병원연맹 총회 유치 노력은 그 이듬해인 2004년 3월 두바이에서 열린 IHF 운영위원회에서 비로서 결실을 맺어 마침내 ‘IHF 총회 한국개최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지요. 이후 병원협회는 2004년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제34차 국제병원연맹 총회와 2006년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지역회의에 많은 대표단을 파견하여 제35차 총회에 해외에서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IHF 홈페이지를 만들어 전세계 병원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브로셔와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이 역시 전 세계 병원인들에게 배포하는 등 성공적인 IHF 총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병원연맹 총회 준비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조직위원회가 맡아 운영하고 있다. 이 조직위원회는 지훈상 연세대의료원장이 대회장을, 김광태 대림성모병원 이사장이 조직위원장을, 연세대 의료원 조우현 기획조정실장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각 분과위원장으로선 학술분과를 남궁성은 가톨릭대 의무원장, 관리분과를 이석



현 동국대학병원 의료원장, 행사분과를 김세철 중앙대 의료원장, 홍보분과를 홍승길 고려대 의료원장, 전시분과를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 재무분과를 이봉암 경희대 의료원장이 맡고 있다. 이들 각 분과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각각 해당분야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병원협회 국제팀과 PCO가 매주 실무간담회를 갖고 행사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조직위원회의 이런 노력의 결과로서 ‘보건 의료분야 유비쿼터스의 비전과 전략’을 대주제로 하여 U-Healthcare, 전자의무기록의

미래 등을 비롯해 4개의 패널(주제발표)과 병원정보시스템, 전자거래와 의료, 유비쿼터스 기술과 의료, 유비쿼터스 시대의 보건정보 관리, 각국의 병원심사시스템 등을 비롯한 13개의 패럴(분과회의의 주제) 그리고 4개의 자유연제를 선정하고, 학술위원회 산하의 실무(소)위원회가 이들 주제의 국내·외 연자를 선정하여 본인들에 대한 통보를 마쳤다.

특히 이번 국제병원연맹 총회엔 병원관리 분야 권위자인 미국의 쇼텔 교수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이름이 난 학자들이 대거 참가해 병원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병원인들의 안목을 크게 높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조직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번 국제행사가 조직위원회의 몇몇 위원들이나 병원협회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전체 병원인들과 병원을 둘러싸고 있는 병원산업 그리고 언론이 하나가 되어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협력할 때 비로서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병원을 중심으로 한 관련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대담 김성환) **KHA**